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4년 4월 30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 1) 4월중 민간고용 220만 명 증가
- 2) 1/4분기 GDP 잠정치 0.1% 증가

【 해외 경제 동향 】

- 1) 유로존, 4월 기업·가계 경기기대심리 '예상하회'
- 2) 일본은행, 양적완화 규모 유지
- 3) 중국 소득격차 확대, 지니계수 0.55... 미국 0.45보다 심각

【 산업·시장 동향 】

- 1) 트위터, 이용자 증가 둔화에 주가 급락
- 2) 익스플로러 '슈퍼버그' 출현, 사용중단 경고

【 미국 경제 동향 】

1) 4월중 민간고용 220만 명 증가

-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고용 조사업체 ADP는 지난 4월중 민간고용이 22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21만 명과 지난 3월 기록인 19만1,430명을 상회한 기록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부문 19만 7천명 증가, 제조업부문 2만 4천명, 건설부문은 1만9천 명 증가
- 한편, 미 노동부는 다음달 2일 이번 달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를 발표, 전문가들은 21만 명 증가를 예상

2) 1/4분기 GDP 잠정치 0.1% 증가

-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지난 1/4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가 연율 기준으로 0.1%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로이터통신이 사전에 집계한 전망치인 1.2%를 하회, 지난해 4/4분기 기록인 2.6%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준
-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혹한의 여파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이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을 원인이라고 분석
 - 재고는 지난해 하반기에 급증한 이후 1/4분기엔 874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무역도 흑한으로 인한 수출입 부진으로 인해 0.83% 감소, 수출은 지난해 4/4분기의 9.5%에서 7.6%로 감소, 수입도 1.4% 감소
 - 소비지출은 3.0% 성장해 지난해 4분기의 3.3%를 하회
 - 주택건설 지출도 흑한의 영향을 받아 연속 2분기 동안 감소, 모기지 금리 상승세 역시 주택건설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침
- o 한편, 개인소비지출(PCE)은 연율 1.4%, 또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1.3%을 기록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4월 기업·가계 경기기대심리 ‘예상하회’

- 지난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과 가계의 경기기대심리를 나타내는 경기기대지수가 102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치를 0.9p 하회하는 수치
- 4월 산업기대지수는 -3.6을 기록, 시장 예상치 0.5p 하회했고, 소비자기대지수는 -8.6을 기록, 시장 예상치 0.1p 상회
- 서비스 기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1.3p 하회하는 3.5를 기록했고, 기업환경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0.15p 하회한 0.27로 집계
- 한편 지난달 경기기대지수는 기존 102.4에서 102.5로, 서비스기대지수는 4.2에서 4.5, 기업환경지수는 0.39에서 0.40으로 각각 조정된 바 있음

2) 일본은행, 양적완화 규모 유지

- 지난 30일(현지시간)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BOJ)이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현행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60~70조엔 증액, 이는 블룸버그가 사전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존 일본은행의 증액 목표 규모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
- 주요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시행된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는 일본은행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

3) 중국 소득격차 확대, 지니계수 0.55... 미국 0.45보다 심각

-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¹⁾가 0.55로 미국의 0.45보다 높게 집계됐다는 논문을 발표
 - 중국의 지니계수는 1980년에 0.30, 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소득불균형이 2배나 악화되었다고 분석
- 한편, 미시간대 논문은 중국 5개 대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 이 논문은 이번 주에 미국국립과학원(PNAS) 회보에 온라인으로 게재될 예정
 - 이 논문은 2010년 지니계수가 2012년 설문조사에서 중국인이 응답한 결과와 일치, 2010년 이후에도 소득분배가 꾸준히 악화됐음을 시사
- 전문가들은 중국인은 소득불균형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면서도 소득 격차를 빠른 경제성장의 대가로 받아들인다고 분석

1) 지니계수는 0과 1사이로 나타나고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짐, 지니계수가 0.50을 넘으면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

【 산업·시장 동향 】

1) 트위터, 이용자 증가 둔화에 주가 급락

-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이후 트위터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11% 넘는 급락세를 보임
 - 전문가들은 이용자 증가세 둔화와 손실 규모의 대폭 증가로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트위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고 분석
- 트위터는 지난 3월 말 현재 월 평균 이용자가 2억5,500만 명이라고 보도
 -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억5,700만 명을 하회,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지만 전년 4/4분기 대비 6% 증가한 것에 그침
- 이용자 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트위터는 올해 1/4분기 1억3,236만 달러의 매출 손실, 주당 21센트의 손실을 기록

2) 익스플로러 ‘슈퍼버그’ 출현, 사용중단 경고

- 지난 29일(현지시간) FT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 버그가 발견되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고 보도
 - 인터넷 사용자들은 IE 대신 구글 크롬이나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고
- 전문가들은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 IE 소유업체인 MS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